



【보도일시】

2024년 7월 31일(수) 10:00 이후

담당 : 조사연구팀 박호성 주임
(990-7095)

2024년 3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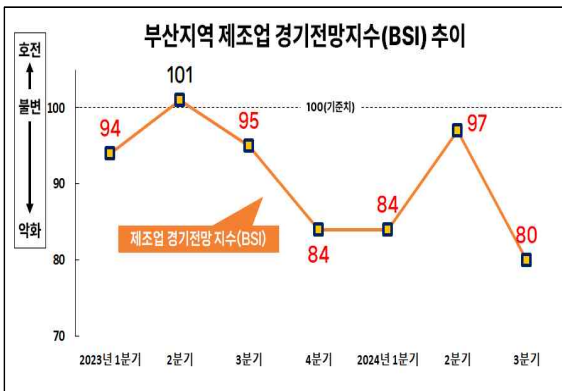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 5분기 연속 하림

- ▶ 부산제조업 BSI '80', 3고 여파에 따른 내수부진과 중국산 저가상품 공세로 고전 예상
- ▶ 대부분 업종 악화 전망 속.. 전기전자와 기계장비는 신산업 성장에 힘입어 호전 전망
- ▶ 중국의 저가상품 공세와 기술격차 축소로 지역기업 위기감 고조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과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로 인한 경쟁 심화로 인해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이 5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31일(수), 지역 제조기업 25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3/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전망지수(BSI)는 기준치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그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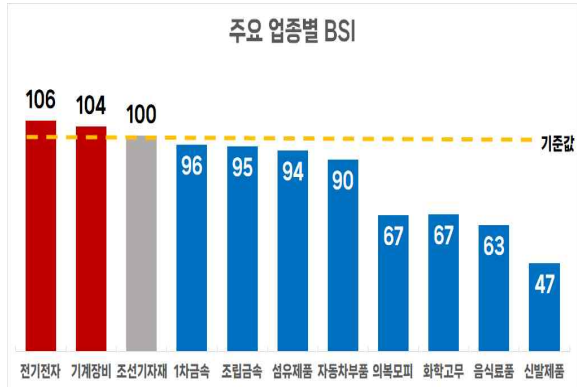
조사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는 '80'을 기록하였다. 직전 분기인 2분기 전망치(97)에 비해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5분기 연속으로 경기부진 전망을 이어갔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등 3고 현상의 지속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 그리고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과잉공급 등 복합 리스크로 인해 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기업경영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어들면서 서울(98), 광주(98), 울산(93), 대전(89), 대구(86), 인천(72) 등 7대 특광역시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하였다.

경영부문별로는 매출(93), 영업이익(84), 설비투자(96), 자금사정(93) 등 전 부문에서 지수가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지역 제조업의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업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경기 부진을 전망했다. 특히 화학고무(67)와 신발(47), 의복모피(67)는 원자재가격 상승과 재고증가에 더해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로 경기전망지수가 기준치를 크게 하회했다. 반면 전기·전자(106)는 AI 등 신산업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증가에 힘입어 변압기 등 관련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업황 호전을 전망했다.



연초 계획한 상반기 실적목표 달성여부와 관련해서는 응답업체의 53.6%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36.0%)와 비교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연초 기대한 금리인하의 지연, 원자재가격 상승, 내수부진 장기화 등 경영환경 악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과잉공급 및 저가상품 수출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63.5%가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현재 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거나 향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36.5%에 달해 중국발 저가상품 공세로 인한 판매단가 하방압력 등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역 제조업 대부분은 중국의 경쟁기업 대비 기술력에서 앞서있으나, 4~5년 이내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 혹은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의 가파른 기술성장속도에 대한 우려도 함께 보였다. 이에 지역기업은 고부가 제품 개발 등 품질 향상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조치 강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팀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은 내수부진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인해 수출마저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이라면서, “내수를 촉진하고 수출기업에게는 물류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 부 : 동 조사결과 1부.

2024년 3/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IS) 조사

< 조사개요 >

1. 조사명

- 2024년 3/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IS) 조사

2. 조사목적

- 분기별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 파악 및 경기 예측
- 경기 흐름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

3. 조사대상

-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500개체(※유효 응답 업체 252개체)

4. 조사방법

- 전화 및 FAX를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5. 조사내용

- 전반적인 체감 경기
- 매출, 영업이익 등 부문별 전망
- 주요 업종별 전망

6. 주의사항

-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10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7. 기업경기전망지수(BSI)의 의미

$$BSI = \frac{\text{호전(증가)표시업체 수} - \text{악화(감소)표시업체 수}}{\text{총 유효응답업체 수}} \times 100 + 100$$

- ※ BSI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경우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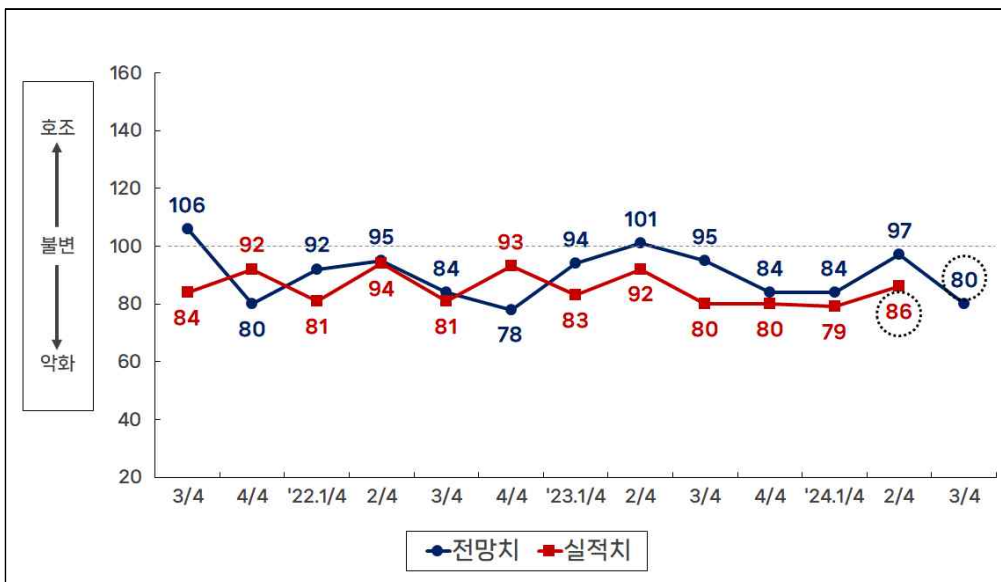
1 2024년도 3/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80**, 내수부진 장기화와 對중국 수출감소 여파로 전분기 대비 체감 경기 악화 전망

- 24년 2/4분기 '97' → 24년 3/4분기 '80' (전분기 대비 17p 감소)
 -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국내 소비위축세 심화되었으며,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의 여파로 화학·고무제조업을 중심으로 업황 부진 심화 전망
 - 특히, 금리인하 기대감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역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 가중으로 경기전망지수는 기준값(100) 하회
 - 한편, 글로벌 수출이 증가한 전기·전자, 기계·장비 업종은 경기호전을 전망하고 있으나, 내수부진과 물가상승 부담 등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경기부진을 전망

- 2024년 2/4분기 기업경기 실적지수 '86' (전분기 대비 7p 증가)

<분기별 BSI 실적 및 전망 추이>



○ 경기불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경기악화 불안감 상존

- 직전분기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한 업체가 49.6%(125개사), 경기호전을 예상한 업체는 15.1%(38개사)인 가운데 경기악화를 예상한 업체가 35.3%(89개사)

< 2024년 3/4분기 경기전망 응답 분포 >

(단위: 개사, %)

구분	호전	불변	악화	계
응답업체 수	38	125	89	252
구성비	15.1	49.6	35.3	100.0

2 경영 부문별 전망

■ 고금리, 고물가,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제조업의 경기 부진 전망

○ 매출(93)

- 중국의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對중국 수출 감소, 국내소비 부진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매출 부진 전망

○ 영업이익(84)

-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해상운임 증가 등 비용증가로 지역 제조업 영업이익 악화 전망
- 특히,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자금조달 비용부담 지속

○ 설비투자(96), 자금사정(93)

- '24년도 3분기 제조업 설비투자·자금사정 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여전히 기준값(100) 하회

< 부문별 BSI 변화 >

구분	실적		전망	
	'24.1/4분기	'24.2/4분기	'24.2/4분기	'24.3/4분기
체감경기	79 →	86	97 →	80
매출액	79 →	85	97 →	93
영업이익	78 →	81	96 →	84
설비투자	82 →	88	92 →	96
자금사정	80 →	86	91 →	93

3 주요 업종별 전망

■ 화학·고무, 신발, 의복·모피 업종에서 경기 악화 전망, 전기·전자, 기계·장비 업종 경기 호전 전망

○ 화학·고무(67)

- 화학 및 고무 제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글로벌 가격경쟁력 약화, 건설업의 업황부진 장기화, 원청의 재고조정 등으로 업황 악화 전망
- 특히, 중국발 저가수주 및 제품 과잉공급으로 인해 기준값(100) 크게 하회

○ 신발(47), 의복·모피(67)

- 신발·의복의 글로벌 수요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스포츠 웨어 기업의 재고조정 지속 등으로 업황 부진

○ 음식료품(63)

-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이 완화되었으나, 인건비 및 판매비 부담 증가로 인해 업황 부진 전망

○ 전기·전자(106)

- AI 등 신산업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증가 등으로 전력수요 증가하면서 변압기 관련 제조업을 중심으로 업황 호조

○ 기계·장비(104)

- 자동차 및 조선·기자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업황 호전을 전망하는 반면, 국내 수요위축과 건설업 부진으로 내수중심 기업의 업황 부진 전망 혼재

< 주요 업종별 BSI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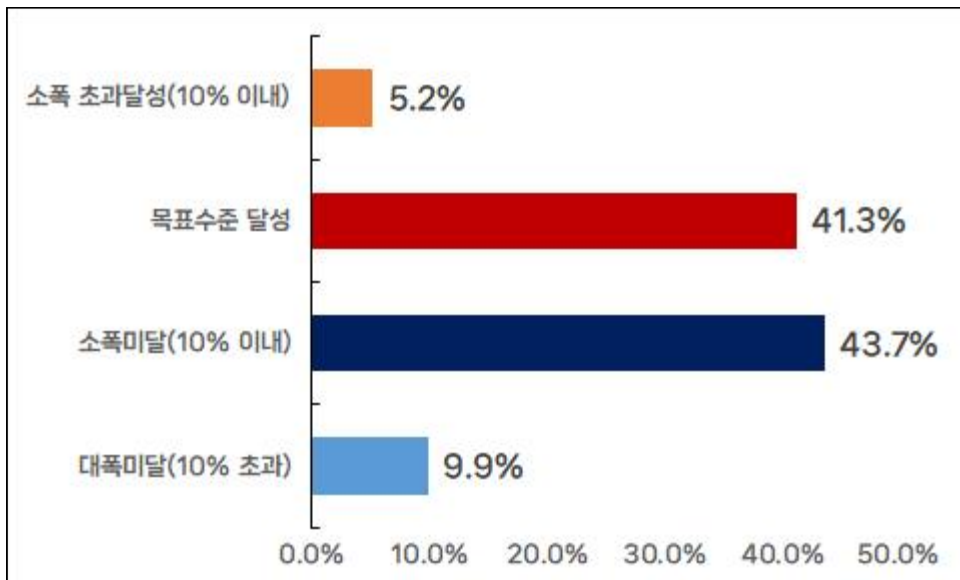
구분	실적		전망	
	'24.1/4분기	'24.2/4분기	'24.2/4분기	'24.3/4분기
음·식료품	60 →	44	93 →	63
섬유제품	69 →	69	88 →	94
의복·모피	54 →	53	77 →	67
신발제품	40 →	73	60 →	47
화학·고무	92 →	96	113 →	67
1차금속	80 →	88	92 →	96
조립금속	82 →	100	100 →	95
전기·전자	95 →	119	114 →	106
기계·장비	96 →	92	129 →	104
자동차·부품	93 →	83	96 →	90
조선·기자재	81 →	103	90 →	100

4

실적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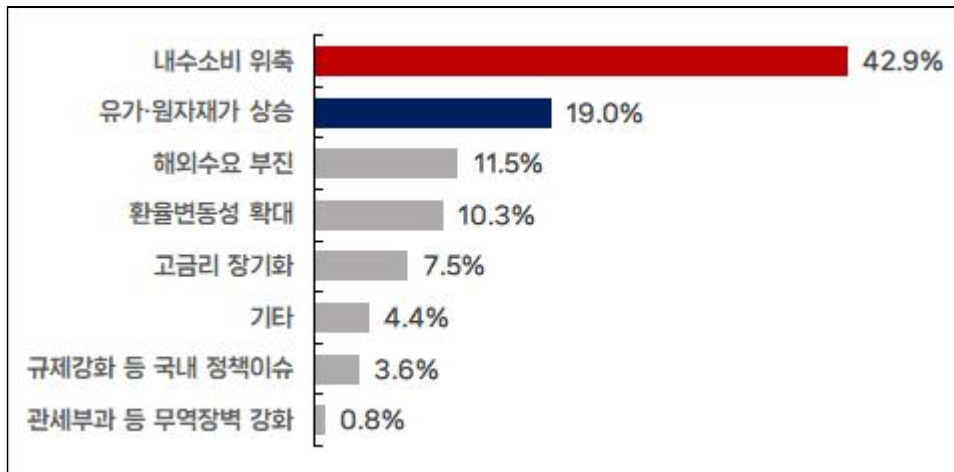
- 연초 계획한 상반기 실적(영업이익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절반 이상
 - 대폭미달(10%이상) 9.9%, 소폭미달(10%이내) 43.7%, 목표수준 달성(41.3%), 소폭 초과달성(10%이내) 5.2%으로 집계
 - 올해 초 계획한 실적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53.6%(대폭미달 + 소폭미달)로 지역기업 절반 이상이 실적부진 전망
 - 이는 연초 기대한 금리인하의 지연, 내수부진,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2024년도 상반기 부산지역 제조업 실적 달성 여부>



- 하반기 실적달성의 가장큰 리스크 요인은 ‘내수소비 위축’
 - ‘내수소비 위축’ 42.9%, ‘유가·원자재가 상승’ 19.0%, ‘해외수요 부진’ 11.5%, ‘환율변동성 확대’ 10.3%, ‘고금리 장기화’ 7.5%, ‘규제강화 등 국내 정책이슈’ 3.6%, ‘관세부과 등 무역장벽 강화’ 0.8%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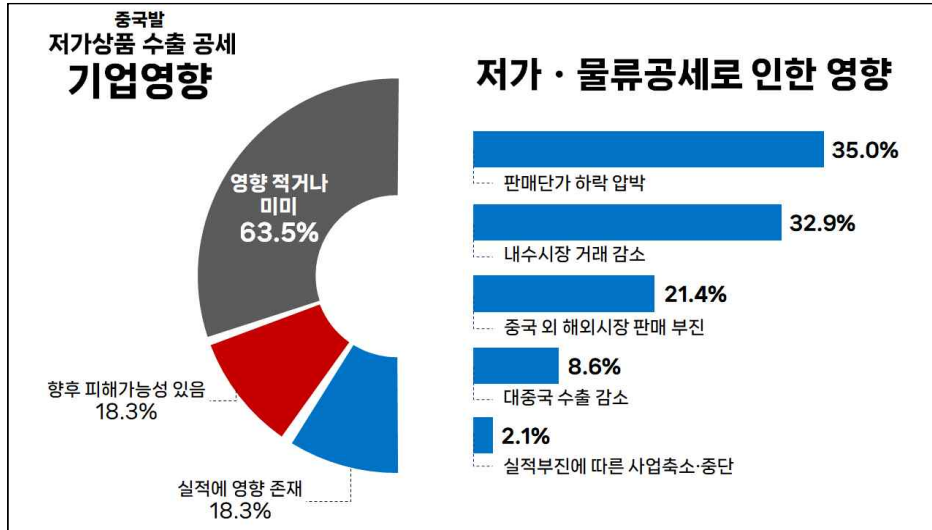
〈하반기 실적달성 주요 리스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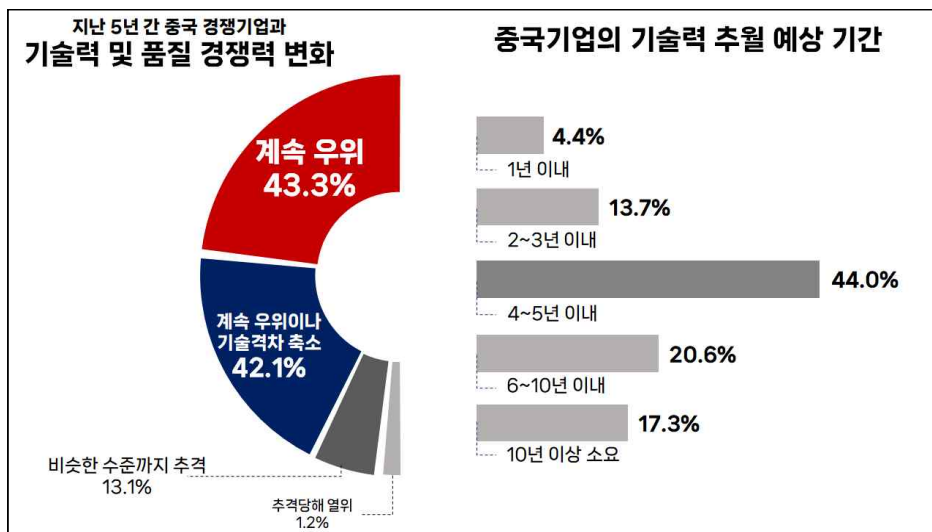
5 중국 저가공세 영향

- 중국의 과잉공급 및 저가상품 수출 확대로 인해 실적 및 경영에 ‘영향이 적거나 없다’ 는 응답이 63.5%로 최다
 - 한편, ‘현재는 영향이 없으나 향후 피해 가능성이 있음’ 과 ‘매출·수주 등 실적에 영향 있음’ 이 각각 18.3%로 나타나면서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인한 실적악화 우려 상존
 - 특히, 가격경쟁력이 치열한 1차금속과 신발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국발 과잉공급 및 저가상품 공세 우려 심화

- 중국의 저가상품, 물량공세로 인해 ‘판매단가 하락 압박’ 피해를 가장 많이 꼽음
 - 이외에도 ‘내수시장 거래 감소’ (32.9%), ‘중국 외 해외시장 판매 부진’ (21.4%), ‘대중국 수출 감소’ (8.6%), ‘실적부진에 따른 사업축소’ (2.1%)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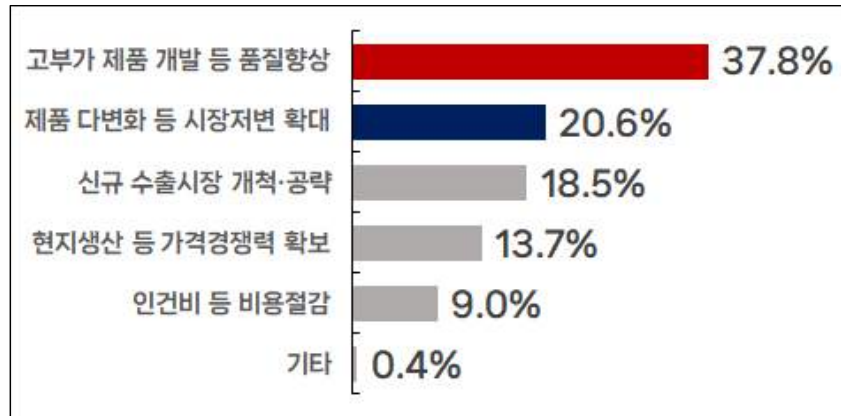


- 지난 5년간 중국 경쟁기업 대비 지역기업의 품질경쟁력은 ‘계속해
우위’가 43.3%로 가장 많음
 - 이외에도 ‘우위에 있으나 기술격차 축소’ (42.1%), ‘비슷한
수준까지 추격’ (13.1%), ‘중국기업에 추월당해 열위’ (1.2%),
‘계속해서 열위’ (0.4%) 등의 순
 - 지역 기업은 중국기업 대비 여전히 품질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의복, 신발, 화학·고무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전망
 - 특히, 4~5년 이내로 중국이 지역기업 기술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하는 분위기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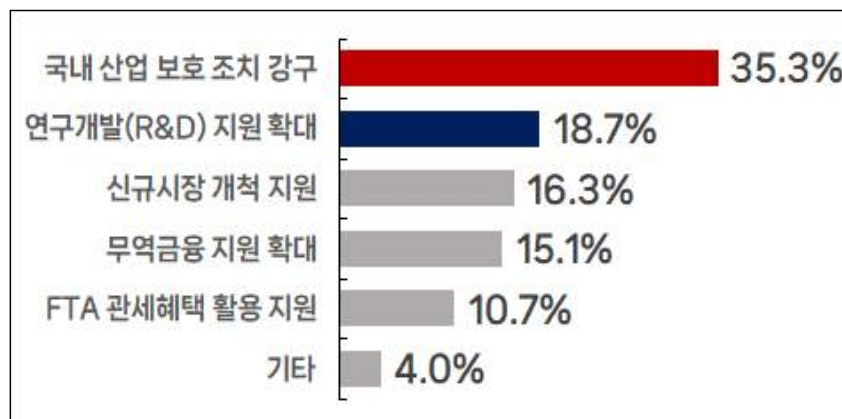
- 지역 기업은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 대해 ‘고부가 제품 개발 등 품질 향상’ (26.2%), ‘제품 다변화 등 시장저변 확대’ (14.3%) 등으로 대응
 - 이외에도 ‘신규 수출시장 개척·공략’ (12.8%), ‘현지생산 등 가격경쟁력 확보’ (9.5%), ‘인건비 등 비용절감’ (6.3%) 등의 순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 중국발 저가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보호 조치 강구’ (35.3%)를 최우선 지원정책으로 꼽음
 - 이외에도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18.7%) ‘신규시장 개척 지원’ (16.3%), ‘무역금융 지원 확대’ (15.1%), ‘FTA 관세혜택 활용 지원’ (10.7%) 등의 순

<중국발 저가공세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BSI)

구분	실적		전망			
	'24.1/4분기	'24.2/4분기	'24.2/4분기	'24.3/4분기		
체감경기	79	→	86	97	→	80
매출액	79	→	85	97	→	93
영업이익	78	→	81	96	→	84
설비투자	82	→	88	92	→	96
자금사정	80	→	86	91	→	93
음·식료품	60	→	44	93	→	63
섬유제품	69	→	69	88	→	94
의복·모피	54	→	53	77	→	67
신발제품	40	→	73	60	→	47
화학·고무	92	→	96	113	→	67
1차금속	80	→	88	92	→	96
조립금속	82	→	100	100	→	95
전기·전자	95	→	119	114	→	106
기계·장비	96	→	92	129	→	104
자동차·부품	93	→	83	96	→	90
조선·기자재	81	→	103	90	→	100